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속 인물들의 철학적 병에 대한 임상철학적 처방과 적용

하중수*

목 차

1. 서론
2. 임상철학과 철학적 병의 진단
3. 처방
4. 처방의 적용
5.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논자의 다른 논문을 이어 작성한 것이다. 전편은 임상철학의 관점에서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하 소설) 속 등장인물들이 걸린 철학적 병을 진단하였다. 이 글에서는 전편의 진단을 바탕으로 철학적 해독제를 처방하고 적용한다.

논자는 김영진이 주장한 임상철학의 관점과 철학적 병의 진단 그리고 처방의 방식을 따랐다. 이 글에서는 김영진의 처방에 정확도와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1) 전편의 진단을 바탕으로 처방의 방향과 원칙을 정한 후에 적절한 철학적 해독제를 선택하고 처방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2) 김영진의 처방 방식에 철학상당적 요소를 더해 철학적 병에 걸린 대상들이 스스로 치료할 수 있도록 철학적 산파의 입장에서 그들을 돕는 철학상담의 형식을 취했다.

처방의 대상은 소설 속 약자인 반 아이들이며, 이들에게 공동체주의적 처방을 할 것이다. 처방의 첫 단계에서는 반 아이들이 연고적 자아임을 인식함으로써, 공동의 소속감을 바탕으로 연대하여 개인선과 공동선을 선택할 수 있는 신념적 기초와 동기를 마련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반 아이들이 도덕적 행위자로서 개인적 목적과

* 강원대학교 철학과 박사과정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매킨타이어의 철학적 지혜인 서사적 탐색을 원용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약자들이 함께 학습의 공공선을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향후 유사한 사례에도 스스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마이클 샌델의 자기통치(self-government)의 지혜를 원용할 것이다.

주제어: 임상철학, 철학적 병, 철학상담, 공동체주의, 마이클 샌델, 알레스테어 매킨타이어

1. 서론

이 글은 필자의 다른 논문¹⁾을 이어 작성한 것이다. 전편은 임상철학의 관점에서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²⁾ 속 등장인물들이 걸린 철학적 병³⁾을 진단하였다. 이 글에서는 전편의 진단을 바탕으로 철학적 해독제⁴⁾를 처방하고 적용할 것이다.

-
- 1) 이하 전편으로 표기한다. 하종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속 인물들의 정의관 분석: 임상철학의 관점에서』,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 2)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민음사, 2017 이하 소설로 표기한다.
 - 3) 철학적 병에 대한 개념은 학계에서 통일된 견해는 없다. 그리고 한국의 철학상담계에서 철학적 병의 인정 여부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다. 논자는 이를 인정하는 입장에 있다. 논자는 철학적 병을 실체가 있는 병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4) 본고에서 사용하는 철학적 해독제는 철학적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철학적 지혜를 의미한다. 철학적 해독제의 개념과 그 메카니즘은 논자의 다른 논문 『성과사회와 철학적 병: 샌델의 정의론으로 치유하기』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코헨의 LBT에서 초월적 덕은 전형적인 중대 오류(cardinal fallacies)를 뛰어넘을 수 있는 행동적 성향을 의미하고, 이 덕을 지지하는 철학적 이론들을 철학적 해독제라고 부른다.” 또한 철학적 해독제의 메카니즘을 코헨의 5단계에 비유하여 “진단과 처방은 코헨의 1, 2, 3단계(정서의 확인, 비합리적 전제 확인하기, 비합리적 전제 반박하기)에 해당하며, 철학적 해독제를 원용한 처방은 코헨의 4, 5단계(철학적 해독제 제시하기, 의지력 수련하기)에 해당한다.” 하종수·최희봉, 『성과사회와 철학적 병: 샌델의 정의론으로 치유하기』, 『인문과학연구』 Vol.55, 2017, 242~243면 참조.

이문열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1980년대 군사독재의 한국 사회를 1960년대 시골의 초등학교 5학년 교실로 우의(寓意, allegory)한 소설이다. 이 소설은 급장 엄석대의 독재에 대한 반 아이들의 저항과 굴종에 관한 이야기이다. 작가는 엄석대가 보여주는 행태의 원관념은 정당성과 정통성이 없는 권력이고, 엄석대를 둘러싼 분단장급의 상위 그룹은 지식인 출신의 관료 내지 행정기술자를 묘사하였다고 설명한다.⁵⁾ 서울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던 한병태는 아버지의 전근으로 갑자기 시골의 한 초등학교로 전학을 온다. 한병태는 불합리와 폭력에 기초한 엄석대의 불의에 저항하지만 반 아이들의 방해로 번번이 실패한다. 반 아이들의 왕따와 괴롭힘에 지친 한병태는 5학년 2학기 초에 엄석대에게 투항한다. 엄석대는 한병태가 자신의 질서 안으로 편입된 것이 확인되자 여러 가지 특혜를 주고, 한병태는 엄석대의 독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6학년으로 진급하고 첫 일제고사에서 엄석대는 시험부정이 들통이나 6학년 담임선생에게 매를 맞고 급장에서 쫓겨난다. 세월이 흘러 한병태는 성인이 되어 몇 번의 사업이 실패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엄석대의 독재에 협력하여 부와 권력을 나누어 갖던 초등학교 5학년의 교실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논자는 전편의 논문에서 소설 속 인물들이 가진 정의관을 분석하여 그들이 걸린 철학적 병을 진단하였다. 철학적 병의 진단을 통하여 병의 원인이 강자 중심의 정의관이라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강자가 아닌 약자들이 강자 중심의 정의관을 가진 이유를 분석하여 소설의 학급에는 강자와 약자 간에 지배와 복종의 목계가 성립되어있음도 알아냈다. 아울러 그 목계가 성립된 이유가 약자와 강자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한 결과라는 사실도 찾았다. 전편과 본고에서 강자 중심의 정의관이란 『고르기아스』⁶⁾의 칼리클레스와 『국가』⁷⁾의 트라시마코스와 글라우콘의 주장을 말한다. 즉 ‘강자의 입장과 이

5) 같은 책, 작가 후기 191면 참조.

6) Plato, 『고르기아스』, 김인곤 옮김, 이제이북스, 2018.

7) Plato, 『국가』, 박종현 옮김, 서광사, 1997.

익을 옹호하고 강자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가치관'을 의미한다.

논자는 전편과 이 글에서 김영진이 주장한 임상철학의 관점을 취했다. 그리고 김영진이 주장한 철학적 병의 진단과 처방의 방식도 따랐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김영진의 처방을 좀 더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진단의 결과를 바탕으로 처방의 방향과 원칙을 정한 후에 적절한 철학적 해독제를 선택하여 처방을 구성한다. 그리고 김영진의 임상철학의 처방 방식에 철학상답적 방식을 보충한다. 철학상답적 방식이란 철학적 병에 걸린 대상들이 스스로 치료할 수 있도록 철학적 산파의 입장에서 그들을 돕는 방식을 말한다.

이 글에서 처방의 대상은 소설 속 약자인 반 아이들이며, 이들에게 처방할 철학적 해독제는 공동체주의적 처방이다. 본 처방의 첫 단계에서는 마이클 샌델의 철학적 지혜를 원용한다. 강자의 불의에 저항하기 위한 약자들의 연대와 공감의 감정을 공동체 의식에서 끌어낸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약자들이 도덕적 행위자로서 개인적 목적과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매킨타이어의 서사적 탐색을 원용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약자들이 함께 학습의 공동선을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향후 유사한 사례에도 스스로 자신과 자신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철학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마이클 샌델의 자기통치(self-government)⁸⁾의 지혜를 원용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김영진의 임상철학에 대한 주장을 요약하고 김영진의 처방 방식에 보충할 논자의 처방을 설명한다. 그리고 전편에서 소설 속 인물들의 철학적 병을 진단한 과정을 간략히 설명한다. 제3장에서는 전편의 진단을 바탕으로 처방의 방향과 원칙을 정한 후에 처방 원칙에 적합한 철학적 해독제를 선택하고 선택한 이유를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철학적 해독제로 원용 할 샌델의 철학을 롤스의 철학과 대비하여 설명한다. 그리고 처방을 '언고적 자아 인식하기'와 '강자 중심의 정의관에 대한 개인적 선의 선택' 그리고 '공동선의 합의: 자기통치의 참여'의 세 단계로 나누어 구성하여

8) Michael J. Sandel, 『민주주의의 불만』, 안규남 옮김, 동녘, 2015, 18면 참조.

적용 할 것이다.

2. 임상철학과 철학적 병의 진단

2.1. 김영진의 임상철학적 진단과 처방 그리고 본고의 처방

전편의 진단과 본고의 처방 그리고 처방의 적용은 임상철학의 관점에서 작성되었다. 임상철학에 관하여는 아직 학계에 통일된 개념이 없다. 국내 학자들의 상당수가 임상철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그것이 가리키는 구체적인 대상, 방법, 목적, 효과 등을 제대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박대원은 임상철학을 철학실천 뿐만 아니라 철학상담·철학치료·철학카페·철학교육 등의 임상적 활동명칭을 모두 포함하는 실천철학의 하위 분야 명칭으로 사용할 것을 주장한다.⁹⁾ 그에 반해 이진남은 임상철학을 철학실천의 하위분야로 두고 다른 사람의 철학적 병을 진단, 처방, 치료하는 활동으로 설명을 한다.¹⁰⁾ 이영의는 임상철학은 내담자의 문제에 대한 철학적 약과 철학적 수술을 이용하여 그 사람의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것이라고 말한다.¹¹⁾ 본고에서는 전편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임상철학의 효시로 여겨지는 김영진의 개념을 따를 것이다. 그는 임상철학을 “철학적 병을 진단하고, 그 진단에 따라 적절한 치료와 처방을 하는 철학의 새로운 분야”라고 정의한다.¹²⁾¹³⁾

9) 박대원, 『임상철학의 정체성 연구 - ‘임상철학’의 국내외 자료 연구』, 『동서철학연구』 제73호, 2014, 417~418면 참조. 실천철학은 이론철학 또는 사변철학과 대비된 것으로 윤리학, 정치철학 등 삶과 직결된 학문을 가리킨다. 반면 철학실천은 철학하기 자체이고 학문이 아니라 실천으로서의 철학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용한 박대원의 글 중에서 실천철학은 철학실천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아래 각주 10번을 참조할 것.

10) 이진남, 『철학상담의 한국적 적용을 위한 기초이론연구 - 용어 정리와 체계설정을 위한 제언』, 『범한철학』 제52집, 2009, 349~355면 참조.

11) 이영의, 『철학상담과 심리치료의 관계: 아헨바흐의 견해를 중심으로』, 『범한철학』 제53집, 2009, 398~399면 참조.

김영진은 철학적 병의 특징을 1) 약, 주사, 수술 등이 필요하지 않고 2) 정신의학적 병과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으며 3) 가치 지향적이고 4) 타인과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며 5)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한다.¹⁴⁾ 그리고 철학적 병을 윤리와 가치관 차원에서의 철학적 병과 잘 못된 논리로 생기는 철학적 병 그리고 인식론 차원에서의 철학적 병으로 나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철학적 병은 자신과 타인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¹⁵⁾

김영진의 철학적 병의 진단과 처방은 세 단계로 구성된다. 김영진의 “잘 못된 의리와 철학적 병”의 경우 첫째 단계는 진단을 위한 준비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의리 개념의 사전적 정의와 역사적 개념을 조사하고, 관련 전문가의 주장을 소개한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의리의 왜곡된 개념을 설명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 김영진은 앞의 주장을 바탕으로 의리와 예법을 혼동하여 인간관계와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한국사회가 철학적 병에 걸린 것이라는 진단을 내린다. 그가 내린 진단은 “의리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의리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나 의식을 가진 것이 곧 철학적 병.”이다. 세 번째 단계는 진단에 대한 처방을 제시한다. 그가 제시한 처방은 첫째, 의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개념을 갖도록 하는 것. 둘째, 우리 사회에서 잘못된 의리가 얼마나 많은 부조리의 타락을 가져오는지 깨닫게 하는 것이다.¹⁶⁾ 그리고 구체적인 처방의 적용 방법으로 개인적 치

12) 김영진, 『철학적 병의 진단과 처방』, 철학과 현실사, 2004, 13면.

13) 이기원에 의하면 鷲田清一은 임상철학의 대상을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치료라는 관점에서 보며, 의사가 아닌 환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직시하는 것을 임상철학의 출발로 본다. 그리고 임상철학은 무엇이 문제인가 함께 생각하는 것이며, 대화를 중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장소 즉 현장을 중요시한다고 설명한다. 中岡成文, 『시련과 성숙: 자기변용의 철학』, 이기원 옮김, 경인문화사, 2015, 역자의 말 10면 참조.

14) 김영진, 앞의 책, 36~38면 참조.

15) 같은 책, 51~248면 참조.

16) 같은 책, 58면 참조.

료와 집단적 치료가 요청된다고 한다.

이 글에서는 김영진의 임상철학에 대한 견해를 따르면서, 두 가지 방식을 추가할 것이다. 1) 처방의 과정을 김영진의 처방에 비하여 좀 더 정밀하게 구성할 것이다. 철학적 병의 증상과 원인, 발생기전 등을 바탕으로 치료의 원칙과 방법을 세우고 그 원칙에 알맞은 철학적 해독제를 선택하고 구성할 것이다. 왜냐하면 같은 증상을 보이는 철학적 병이라도 병의 원인과 발생기전이 다를 수 있으며 또한 처방의 대상에 따라 철학적 해독제도 다르게 선택하여 처방을 구성하여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처방을 적용한 후 처방의 수렴과정과 처방의 효과를 상호 비교 검증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처방의 과정은 처방의 정확도와 치료효과를 높일 것이다. 2) 결정된 처방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단계를 추가할 것이다. 즉 임상철학의 취지에 맞추어 철학상담의 방식을 적용할 것이다. 이는 철학적 병에 걸린 대상자들에게서 정서적이고 의지적이며 행동적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논자가 취하려는 방식은 개인의 인식과 믿음의 자기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의 세계관이나 가치관과 같은 믿음의 체계를 변화시킴으로서 사회적 문제로 인한 개인적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철학적 병에 걸린 대상이 스스로 치료할 수 있도록 철학적 산파의 입장에서 그들을 돕는 철학상담의 방식을 취한다.¹⁷⁾

2.2. 철학적 병의 진단

전편의 작성 목적은 소설 속 등장인물들이 철학적 병에 걸렸는지를 진단하는 것이었다. 논자의 진단 결과 소설의 등장인물들은 철학적 병을 앓고 있었다. 철학적 병의 원인은 모두 강자 중심의 정의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 철학적 병의 증상은 엄석대의 독재와 학교폭력 그리고 학급 민주

17) 허중수·최희봉, 『성공사회와 철학적 병: 샌델의 정의론으로 치료하기』, 『인문과학연구』 제55집, 2017, 228면 참조.

주의의 파괴로 나타났다. 학급의 구성원들은 강자인 엄석대의 행동을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그의 입장과 이익을 옹호한다. 즉 엄석대는 강자이므로 담임선생처럼 반 아이들을 감독하고 처벌하고, 학교폭력을 휘두를 수 있으며, 학급의 일을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학급을 비민주적으로 운영하여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약자인 반 아이들 역시 강자로서 약자를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¹⁸⁾

전편과 본고에서 강자 중심의 정의관이란 『고르기아스』의 칼리클레스와 『국가』의 트라시마코스와 글라우콘의 주장을 말한다. 즉 ‘강자의 입장과 이익을 옹호하고 강자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가치관’을 의미한다. 전편에서 칼리클

18) 반 아이들이 학급 공동체의 차원에서 강자 중심의 정의관을 갖고 행동을 한 사례, ()는 소설의 면수임.

1. 반 아이들은 엄석대는 강자이므로 담임선생처럼 역할을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인식한다.
 - ① 엄석대가 부르면 담임선생이 부른 것처럼 가야한다.(12~15면)
 - ② 엄석대가 마치 담임선생처럼 반 아이들의 자리를 바꾼다.(16면)
 - ③ 엄석대는 반 아이들끼리의 싸움에도 담임선생처럼 시비를 가려 처벌을 한다.(17면)
 - ④ 엄석대가 담임선생처럼 청소검사, 숙제검사와 처벌을 한다.(17, 25, 45, 50~52면)
2. 반 아이들은 학급의 일을 엄석대가 독단적(비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 ① 학급의 미화를 위하여 비품구입비를 걷고, 대금의 일부를 빼돌린다.(73면)
 - ② 엄석대가 돈을 받고 분단장을 임명한다.(73면)
 - ③ 심지어 담임선생도 급장을 뽑을 때 엄석대가 반 아이들에게 거짓이나 강압을 하였지만 담임선생은 엄석대의 급장 지위를 인정한다.(40~41면)
3. 반 아이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강자 중심의 정의관으로 행동한 사례
 - ① 엄석대의 부하(체육부장과 미화부장)가 되어 약자에게 행패를 부리는 행위(13면)
 - ② 엄석대의 비리를 담임선생에게 이른 한병태를 고자질쟁이라고 반 아이들이 비난하는 행위(34면)
 - ③ 엄석대의 비리를 고발하라는 담임선생의 지시에도 엄석대의 비리를 고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한병태의 잘못 만을 고변하는 행동(39~40면)
 - ④ 반 아이들은 자신보다 약자인 한병태에게 왕따를 놓고, 수시로 주먹 싸움을 걸고(42~44면), 한병태의 잘못 만을 찾아 고발하는 일(45면)
 - ⑤ 엄석대에게 뇌물을 바치는 행위(16면, 73면)
 - ⑥ 점심시간에 엄석대에게 먹을 물을 떠다 주는 일(20~21면)

레스와 트라시마코스 그리고 글라우콘이 주장한 정의관의 공통 속성 9가지를 추출하였다.¹⁹⁾ 그리고 추출한 강자 중심의 정의관의 공통 속성 9가지와 소설 속 인물들의 말과 행동이 부합되는지 비교하였다. 비교한 결과 등장인물 대부분이 강자 중심의 정의관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²⁰⁾ 그리고 강자가 아닌 약자들이 강자 중심의 정의관을 가진 이유를 분석하여, 약자인 반 아이들과 강자인 엄석대 사이에는 강자 중심의 정의관을 바탕으로 지배와 복종의 목계가 성립되어 있음을 밝혔다. 강자와 약자 사이에 지배와 복종의 목계가 성립한 이유는 각자의 이익 추구였음도 아울러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자 중심의 정의관이 철학적 병인지를 김영진의 주장²¹⁾에 근거하여 확인하였다.

3. 처방

이번 장에서는 ‘약자들이 강자 중심의 정의관을 가진 이유’와 ‘작가가 가

19) 칼리클레스와 트라시마코스 그리고 글라우콘이 주장한 정의관의 공통 속성

순번	공통속성	칼리클레스와 트라시마코스 그리고 글라우콘의 주장
1	정의의 근원	모두 정의의 근원을 힘으로 인식
2	정의의 주체	모두 정의의 주체를 강자로 본다.
3	정의의 결과	실정법 상황과 자연법 상황에서 정의의 결과는 강자와 약자가 반대이다.
4	법의 성질과 제정 주체	칼리클레스: 약자들이 강자에게 족쇄를 채우는 것. 약자들이 제정한다. 트라시마코스: 강자의 이익을 실현하는 수단, 강자가 제정한다. 글라우콘: 약자들의 타협의 산물, 약자들이 제정한다.
5	강자의 구분	칼리클레스: 강자들은 전제 받지 않는 권력을 가져야 한다. 트라시마코스: 강자들이 법을 제정하고 법으로 약자를 지배한다.
6	탐욕	모두 탐욕을 인정하고 추구한다.
7	불의에 대한 태도	칼리클레스: 불의를 당하는 것이 본성상 더 수치스럽고, 법적으로 더 수치스러운 것은 불의를 행하는 것. 트라시마코스: 불의를 비난하는 이유는 불의를 행하는 것 보다 불의를 당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글라우콘: 불의를 저지르는 것은 인간의 탐욕 때문이다.
8	최상급의 불의	모두 전제 군주나 완벽하게 불의한 참주를 최상급의 불의로 본다.
9	불의한 삶 vs 정의로운 삶	모두 불의한 삶이 정의로운 삶보다 낫다고 주장한다.

진 민중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처방의 방향을 정하고 처방의 방향에 맞는 처방의 원칙을 세운다. 그리고 처방의 원칙에 적합한 철학적 해독제를 찾는다. 철학적 해독제로 마이클 샌델의 철학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아울러 처방의 시기와 대상을 특정한다. 처방의 방향이란 철학적 병의 원인을 분석하여 처방의 원칙을 정하는데 기초로 삼는 것을 말한다. 처방의 원칙이란 처방의 방향에 따라 처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적절한 철학적 해독

20) 소설 속 등장인물들이 언행으로 표현한 칼리클레스, 트라시마코스, 글라우콘의 정의관

구분	엄석대	한병태	반 아이들	5학년 담임	6학년 담임	한병태의 부모
종합 칼리 21 트라 39 글라 29	칼리 4 트라 8 글라 6	칼리 4 트라 8 글라 6	칼리 4 트라 8 글라 6	칼리 4 트라 8 글라 6	~	칼리 5 트라 7 글라 5
1. 정의의 근원	칼리 트라 글라	칼리 트라 글라	칼리 트라 글라	칼리 트라 글라	~	칼리 트라 글라
2. 정의의 주체	칼리 트라 글라	칼리 트라 글라	칼리 트라 글라	칼리 트라 글라	~	칼리 트라 글라
3. 정의의 결과	트라	트라	트라	트라	~	트라
4. 법의 측면	트라	트라	트라	트라	~	트라
5. 김만권의 강자 구분	트라	트라	트라	트라	~	트라
6. 탐욕	칼리 트라 글라	칼리 트라 글라	칼리 트라 글라	칼리 트라 글라	~	칼리 트라 글라
7. 불의에 대한 태도	글라	글라	글라	글라	~	칼리 글라
8. 최상급의 불의	트라 글라	트라 글라	트라 글라	트라 글라	~	~
9. 불의한 삶 vs 정의로운 삶	칼리 트라 글라	칼리 트라 글라	칼리 트라 글라	칼리 트라 글라	~	칼리 트라 글라

범례: 칼리는 칼리클레스, 트라는 트라시마코스, 글라는 글라우콘의 줄임 말이다. 1. 정의의 근원이라는 속성에 대하여 엄석대는 칼리클레스, 트라시마코스 그리고 글라우콘의 주장과 같은 정의관을 갖고 있다는 의미임. 각 속성을 종합하면 소설 속에서 엄석대는 칼리클레스의 정의관과 일치하는 부분이 4번, 트라시마코스와는 8번, 글라우콘의 주장과는 6번 일치하는 말과 태도를 보였다는 의미임.

21) 앞 절을 참조할 것.

제의 선택에 지표로 삼는다.

3.1. 처방의 방향

본 절에서는 처방의 방향이 도출된 이유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처방의 방향은 모두 세 개이다. 처방의 방향은 1) 약자인 반 아이들이 강자의 불의에 맞서 각자의 이익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자신의 선과 학급의 공동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처방되어야 한다. 2) 약자들이 연대하여 강자에게 저항할 수 있도록 강자와 약자의 구도를 1:1에서 강자 1:약자 다수의 구도로 인식을 전환시켜주는 처방이어야 한다. 3) 약자들이 개인의 선과 학급의 공동선을 지키는 이유를 외부의 권위나 권력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찾는 기회가 제공되도록 처방되어야 한다. 처방의 방향은 전편에서 철학적 병의 진단에서 분석한 ‘약자들이 강자 중심의 정의관을 가진 이유’와 소설에서 ‘작가가 바라보는 민중의 개념’에서 나왔다. 1)의 처방의 방향은 철학적 병이 발병한 이유가 약자가 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강자 중심의 정의관을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2)의 방향은 약자들이 연대하여 강자에게 저항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3)는 작가가 약자의 속성을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공동선(common good)의 추구가 실제적으로 어렵다고 묘사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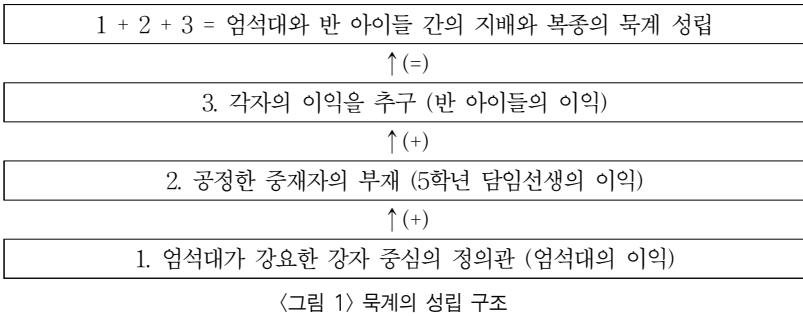
한병태와 반 아이들은 약자임에도 강자 중심의 정의관을 갖고 있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네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1) 외부적 요인으로 5학년 담임선생이 학급을 수월하게 경영하려고 엄석대의 힘을 이용하고 비호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5학년 담임선생은 엄석대의 힘을 이용하여 학급을 경영한다. 그는 엄석대의 위협이나 속임수에 의해 급장 선출이 이루어진 것임을 알고 있다.²²⁾ 그러나 5학년 담임선생은 이를 바로 잡기보다는 오히려 엄석대에게 학교규칙의 감찰권과 처벌권을 위임함으로써 엄석대의 독재를

22) 소설, 40~41면 참조.

강화시킨다. 다음의 2)부터 4)까지는 반 아이들의 심리적 요인이다. 2) 칼리클레스와 트라시마코스 그리고 글라우콘이 주장한 것처럼, 인간은 자신이 가진 탐욕 때문에 누구나 강자가 되기를 꿈꾼다. 엄석대가 절대강자로 군림하는 학급에서 누구도 절대강자의 위치에 오르기 어렵지만, 반 아이들끼리는 상대적 강자와 상대적 약자의 입장을 수시로 경험하는 것이므로 반 아이들이 강자 중심의 정의관을 갖는 것은 가능하다. 3) 약자들이 강자가 지배하는 현실에서 강자 중심의 정의관을 받아들여 체념함으로써 심리적 갈등이나 인지부조화에서 벗어나려는 전략일 수 있다. 약자인 반 아이들은 엄석대의 횡포를 견디기 어렵지만 학교를 그만둘 수 없는 입장에서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시키는 심리적 도피기제이다. 엄석대가 강요하는 강자 중심의 정의와 그 정의에 기반 한 질서를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서 마음의 갈등을 줄이고, 엄석대의 독재 질서가 주는 안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4) 한병태나 분단장급의 우등생 그룹이 취한 자세로서 엄석대를 최강자로 인정하고 엄석대의 독재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차상위(次上位) 강자로서 살아가려는 태도이다. 2)의 해석은 상대적으로 강자와 약자의 입장이 수시로 바뀐다는 점에서 약자도 강자 중심의 정의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 4)의 해석은 최강자로 엄석대를 인정하고 집단 내에서 차 순위 강자로 군림하려는 욕망 때문이다. 2)에서 4)까지의 해석에서 반 아이들이 현실을 인정하고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건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그들이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네 가지 해석의 공통점은 첫째, 외부의 강요에 대한 수동적 반응이라는 점이다. 1)의 해석은 5학년 담임선생의 처사에 대한 반 아이들의 수동적 반응이고 나머지 2)에서 4)까지의 해석은 엄석대가 강요하는 강자 중심의 정의관에 대한 반 아이들의 수동적 반응이라는 점이다. 즉 5학년 담임선생의 엄석대 비호와 엄석대의 강요에 반 아이들은 앞의 이유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복합적 이유로 엄석대가 강요하는 강자 중심의 정의관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만약 엄석대가 그 학급에 존재하지 않았거나, 담

임선생이 엄석대의 횡포를 막았다라면 반 아이들의 가치관은 강자 중심의 정의관이 아닌 자유와 합리²³⁾에 기초한 정의관을 가졌을 수도 있었다. 둘째 해석의 공통점은 2)부터 4)까지 반 아이들의 심리적 상태이다. 약자인 반 아이들이 엄석대의 횡포로부터 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였다는 점이다. 이들은 5학년 담임선생이 엄석대를 비호하는 가운데 엄석대가 강요하는 정의관을 받아들일지 배척할지를 판단할 때, 그 기준으로 자신의 이익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래서 강자 중심의 정의관을 기저로 각자의 이익을 고려한 엄석대와 반 아이들 간의 지배와 복종이라는 타산적 목계가 성립되었다. 즉 반 아이들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적 선으로 강자 중심의 정의관을 선택하였으며, 학급의 공동선으로 강자 중심의 정의관을 공유하는 가치로 여겼다. 목계의 성립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다.



목계의 성립 단계에 기초이며 시작은 엄석대의 이익이다. 엄석대의 이익을 기초로 5학년 담임선생의 이익이 더해졌다. 5학년 담임선생은 엄석대의 독재와 횡포를 알면서도 수월한 학급 운영을 위하여 엄석대의 독재를 묵인하고 오히려 엄석대의 독재를 비호하였다. 엄석대와 5학년 담임선생의 이익에 반 아이들의 각자 이익이 더해져서 엄석대와 5학년 담임선생과 반 아

23) 한병태가 전학을 오기 전에 자신이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원리가 합리와 자유이다. 소설 17~18면 참조.

이들의 이익이 합치되었다. 모두의 이익을 추구한 결과로 엄석대와 반 아이들 간의 지배와 복종의 묵계(convention)가 성립이 되었다.²⁴⁾²⁵⁾ 세 번째 공통점은 반 아이들은 엄석대와 자신을 1:1의 구조로 생각하여 반 아이들끼리 연대하지 않았다. 반 아이들이 엄석대에게 연대하여 대항하였다면, 엄석대의 독재는 성립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었다.

앞의 분석을 토대로 처방의 방향 1)은 엄석대와 반 아이들 간의 지배와 복종의 묵계가 성립한 이유에서 나온다. 약자인 반 아이들은 각자의 이익을 위하여 엄석대의 불의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묵계의 성립구조에서 알 수 있듯이 반의 구성원 모두 - 엄석대, 5학년 담임선생, 반 아이들 - 자신의 이익 추구가 엄석대의 독재를 성립하게 하였다.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였으므로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엄석대와 5학년 담임선생을 제외한 반 아이들은 행복하지 못하다. 엄석대의 각종 학교폭력과 전횡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반 아이들은 엄석대와 같은 독재자가 강자 중심의 정의관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할 때 각자의 이익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처방의 방향이 ‘약자인 반 아이들이 강자의 불의에 맞서 각자의 이익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자신의 선과 학급의 공동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처방되어야 한다.’가 도출되었다.

2)의 처방의 방향은 반 아이들이 연대하여 엄석대에게 저항을 하지 않았

24) 묵계(convention)란 흄의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 3 도덕에 관하여』 ‘제2부 정의와 불의에 관하여’에서 ‘정의의 규칙을 준수하는 것과 공공의 이익을 결부시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으며, 이제부터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정의의 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인위적인 묵계(an artificial convention)에 따라 공공의 이익은 정의와 연결될 뿐이다’라는 주장에서 인용하였다. 즉 묵계란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지 않았지만 서로 뜻이 맞아 성립된 약속이란 의미이다. David Hume, 『도덕에 관하여』, 이준호 옮김, 서광사, 2014, 57면 참조.

25) 송영숙은 반 아이들이 엄석대의 권력에 대하여 저항을 하지 않는 이유로 권력이 주는 달콤한 열매와 안정된 생활의 보장을 이유로 든다. 그래서 “엄석대와 반 아이들 사이에 지배와 복종에 대한 합의가 암묵적으로 전제되어 있음을 암시한다.”고 설명한다. 송영숙, 『이문열 소설의 군중과 권력연구 - 『들소』, 『칼레파 타 칼라』,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45면 참조.

다는 점에서 도출되었다. 엄석대는 반 아이들 전체에게 강자 중심의 정의관을 강요하였다. 그러나 반 아이들은 엄석대와 자신이 1:1로 맞서고 있다고 판단했다. 약자는 강자와 1:1의 구도에서는 저항하기 어렵고 이기기는 더욱 어렵다. 그러므로 약자들은 연대하여 자신의 힘을 키워야 한다. 제 각기 살 길을 도모하는 각자도생의 전략을 버리고 연대하여 강자에게 저항할 수 있는 전략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래서 처방의 방향이 ‘강자와 약자의 구도를 강자 1 : 약자 다수의 구도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처방하여야 한다’가 나왔다.

3)의 처방의 방향인 ‘약자들이 개인의 선과 학급의 공동선을 지키는 이유를 외부의 권위나 권력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찾는 기회가 제공되도록 처방되어야 한다.’는 두 가지 이유에서 도출 되었다. 첫 번째 이유는 5학년 담임선생이 엄석대의 불의를 교정하고 학급의 민주적 운영을 하여야 하는 역할을 하지 않아 약자인 반 아이들이 강자 중심의 정의관을 가졌다고 설명을 했다. 그런데 공정한 중재자의 존재가 이 철학적 병의 발병을 막는 방법이라면 본 처방의 목적과 어긋난다. 본 처방의 목적은 철학적 병에 걸린 약자들이 스스로 치료할 수 있도록 철학적 산파의 입장에서 그들을 돕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작가가 가진 민중에 대한 개념에서 나왔다. 작가는 민중을 소설에서 반 아이들로 우화하였다.²⁶⁾ 작가가 평소 다른 작품에서 보여주었던 민중에 대한 시각이 이 소설에서도 그대로 표현되었다. 이남호는 작가가 바라보는 민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작가는 집단의 속성이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공동선(共同善)의 추구가 실제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²⁷⁾ 황명훈은 이렇게 말한다. 작가의

시각은 철저히 민중을 부정하는, 그래서 민중은 부당한 권력에 아부하기에 급

26) 본 소설은 알레고리 소설로 알려졌으며, 작가 스스로도 우화적인 구도를 가진 소설이라고 설명을 한다. 소설, 작가 후기, 191면 참조.

27) 이남호, 『낭만이 거부된 세계의 원형적 모습』, 『이문열 중단편집(하) 해설』, 열린책들, 1993, 380면 참조.

급한 지극히 이기적인 속성만 가지고 있을 뿐, 그들이 역사의 주체가 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허무주의적 세계관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민중은 무지하고 나약하며 소극적인 존재이기에 스스로 힘을 뭉쳐 현실의 부당함을 타파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민중을 이끌어 줄 영웅적 존재가 출현하기 마련인데, 만약 그 영웅이 정의롭고 긍정적인 인물이라면 다행이겠지만 권력의 속성상 그럴 확률은 지극히 낮을 것이고, 따라서 설령 그 영웅적 존재가 도덕적으로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폭군의 경우라 할지라도, 그리하여 온갖 억압과 불의가 자행된다하더라도 그 잘못은 어차피 민중들이 자초한 것이기에 할 말 없다는 태도이다.²⁸⁾

즉 작가는 소설에서 묘사한 반 아이들을 비주체적이며 이기적인 군중으로 우화하였다. 그러므로 반 아이들에게 필요한 처방은 개인의 선과 학급의 공동선을 지키는 이유를 스스로 발견하도록 하여야 한다. 약자들이 개인의 선과 학급의 공동선을 지키는 이유를 외부의 권위(담임선생)에 기대거나, 또 다른 영웅(착한 영웅)²⁹⁾의 힘에 의해 지켜야 한다면 이들의 철학적 병은

28) 황명훈, 「교실 내 권력의 문제를 다룬 소설 비교 연구」,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35면.

민중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은 소설 속에서 여러 군데에서 나타난다. 첫 번째는 소설 40~41면에서 엄석대의 비행을 일러바치는 한병태에게 5학년 담임선생은 반 아이들이 “서울 아이들같이 모두가 똥똥하”지 못해 서울의 방식처럼 학급을 운영할 수 없으니 엄석대의 방식에 적응하라고 종용한다. 두 번째는 한병태의 술회를 통해 대중을 불신하는 대목으로 78~79면에 있다. 6학년 담임선생에 의해 엄석대가 급장에서 쫓겨나고 새로운 급장을 선택해야 할 순간에 한병태는 난감해한다. 그 까닭은 “공부에서건 싸움에서건 또 다른 재능에서건 남보다 나은 아이치고 석대가 받을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아이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한병태의 생각에 반 아이들은 석대의 손발이 되어 석대의 불의를 도운 협조자이거나 구구단도 아직 못 외는 돌대기리거나 또는 겁 많은 허풍선이였다. 세 번째는 한병태는 전학 온 처음에는 엄석대의 불의에 저항하지만 5학년을 마치기 전에 엄석대에게 굴복하고 엄석대의 측근이 된다. 저항을 버리고 굴종을 택한 한병태는 엄석대의 권력이 주는 과실을 향유한다. 성인이 된 한병태는 생활이 어려워지자 급장 엄석대가 지배했던 옛날의 초등학교 교실을 그리워한다. 자신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세상에 다시 엄석대가 급장이 되어 자신을 등용해 주기를 기대한다. 84면.

29) 소설의 제목이 암시하듯 엄석대를 일그러진 영웅으로 보고, 일그러지지 않은 영웅을

치유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³⁰⁾

3.2. 처방의 원칙

이 절에서는 앞 절에서 도출된 처방의 방향에 맞추어 처방의 원칙을 정한다. 또한 처방의 시기와 대상을 특정한다. 본 처방의 목적은 강자 중심의 정의관으로 인한 철학적 병을 치유하려는 시도이다. 본 처방은 임상철학적 처방이므로 반 아이들의 인식의 변화를 유도할 것이다. 앞 절의 세 가지 처방의 방향에 적합한 처방은 공동체주의적 처방이다. 즉 1) 반 아이들이 자신의 선과 학급의 공동선을 결정할 때 각자의 이익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처방하는 것. 2) 약자들이 연대하여 강자에게 저항하도록 처방하는 것. 3) 약자들이 개인의 선과 학급의 공동선을 지키는 이유를 스스로 찾도록 처방하는 것이다. 공동체주의란 공동선과 공동체와 구성원의 관계를 중시한다. 학급 공동체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개인적 선과 학급 공동체가 추구하는 공동선의 기준을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에서 찾고, 개인적 선과 공동선이 조화를 이루어 학급 구성원들이 좋은 삶을 살도록 처방을 할 것이다.

공동체주의적 처방을 하는 이유와 처방의 원칙은 1) 공동체주의자들은 인간의 삶이 공동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공동체의 문화와 가치 그리고 역사의 영향을 받으며, 공동체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역할을 요구받는 연고적 자아(encumbered-self)³¹⁾라고 보기 때문이다.³²⁾ 매킨타이어의 말에 따르면

착한 영웅으로 비유하였다.

30) 평론에 따르면 작가는 민중을 ‘비주체적이고 이기적인 군중’으로 보고 있고, 논자는 반 아이들을 이성을 가진 합리적인 주체로 판단하였다. 이 두 가지 관점은 본고에서 충돌하지 않는다. 작가가 바라본 민중 혹은 군중은 비주체적이며 비합리적이지 않다. 다만 더 나은 선택을 하지 못한 것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철학은 약자인 반 아이들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그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임상철학이 더 나은 방안을 약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주체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이므로 자신에게 무엇이 더 유리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두 관점은 서로 모순된 것이 아니며, 서로 보완의 관점이다. 본고에서 말한 합리적인 주체란 이성과 논리로서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다른 가치관을 자신의 가치관으로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도덕적 선택의 순간에 자신의 삶의 통일성을 묻는다는 것이다. 매킨타이어는 “나를 위한 선(개인 선)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삶의) 통일성을 최선의 방식으로 살아낼 수 있으며 또 완성 시킬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다.”³³⁾라고 말한다. 이 주장을 반 아이들에게 처방을 한다면, 그들은 엄석대가 강요하는 강자 중심의 정의관을 수용할지 결정할 때 가족과 친구들, 학급, 담임선생, 학교 그리고 마을과 지역의 이야기 등을 팔호를 쳐서 선반에 올려놓고³⁴⁾, 독립적이며 타산적인 개인으로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부모와 형제, 친구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과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어른들에게 들었던 옛날이야기의 교훈을 반추하여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추구하는 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결정을 한다. 공동체주의자는 도덕적 선택의 갈림길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전해지는 공동체가 추구하는 선의 맥락 속에서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 아이들은 공동체주의적 처방을 통해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마음을 극복하고

31) 연고적 자아란 샌델이 롤즈의 자유주의적 자아를 무연고적 자아라고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 성격의 자아를 연고적 자아라고 지칭한다. 즉 롤즈의 자아는 사회 이전에 독립된 자아로서 공동체에 대한 유대나 충성심 등을 설명할 수 없는 자아이고, 연고적 자아는 공동체의 문화나 역사 등에 영향을 받은 자아로서 구성원의 자아에 공동체의 가치 등이 영향을 미친 구성적 자아라는 의미이다.

32) 공동체주의는 자유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명확하게 규정짓기 어려운 개념이다. 대체로 인간관, 주관주의/객관주의, 보편성/특수성, 국가 중립성 등이 두 사조 간의 논쟁거리이다. 대표적인 공동체주의 이론가들은 마이클 샌델, 알레스테어 매킨타이어, 테일러, 윌저가 있다. Stephan Mulhall and Adam Swift, 『자유주의와 공동주의』, 김해성·조영달 옮김, 한울, 2017, 7면 참조.

33) Alasdair Macintyre, 『덕의 상실』, 이진우 옮김, 문예출판사, 1997, 322면.

34) 팔호를 친다는 말은 샌델에 따르면 최소주의적 자유주의자들은 공적영역에 들어갈 때 자신들이 선택하지 않은 도덕적·종교적 의무를 제거두어야 하고, 정치와 법을 숙고할 때는 자신들의 도덕적·종교적 신념들을 팔호 쳐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한다. 즉 개인적 정체성과 정치적 정체성을 구별되어야 한다는 주장에서 나온 말이다. Michael J. Sandel, 『민주주의의 불만』, 안규남 옮김, 동녘, 2015, 34~35면 참조; Michael J. Sandel, 『정의의 한계』, 이양수 옮김, 멜론, 2014, 391~400면 참조.

공동체가 추구하는 선을 도덕적 판단의 기준으로 삼게 된다.

2) 소설 속 반 아이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선의 맥락에서 도덕적 판단을 하고자 하여도, 각자 개인의 입장에서 강자의 강압을 물리치기는 어렵다. 약자가 강자의 불의와 강압에 맞서서 홀로 강자에게 저항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약자들은 연대하여 강자와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본 처방은 약자들이 연대를 이루는 동기를 공동체주의에서 찾는다. 공동체주의는 애착관계에 의한 연대의무를 도덕적 의무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³⁵⁾ 샌델은 “충성과 책임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특정한 사람으로서, 즉 이 가족, 이 도시, 이 민족의 성원으로서, 이 역사의 담지자로서, 이 공화국의 시민으로서 이해하는 일과 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³⁶⁾ 연대의 책무에 익숙한 공동체주의자들은 강자에게 연대하여 저항하는 정치적인 행동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연대의 책무는 다음에 설명될 자기통치의 기반이 된다.

3) 반 아이들은 개인적으로 판단한 선을 바탕으로 다른 구성원들과의 토론과 합의를 통하여 학급의 공동선을 결정할 수 있다. 샌델은 “공화주의 이론의 중심 생각에 따르면, 자유는 함께하는 자치(sharing in self-government)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³⁷⁾ 샌델에 따르면 ‘자치에 참여하는 것’은 “동료 시민과 함께 공동선에 대해 숙고하고 정치 공동체의 운명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³⁸⁾ 공공선의 결정에 참여하고 숙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이 저울질된 도덕적 판단이 개입된다. 반 아이들의 공동선에 대한 숙고와 합의 과정은 엄석대의 불의에 대해 연대하여 저항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체적 처방은 강자 중심의 정의관이란 철학적 병에 감염된 반 아이들에게 적합한 처방의 원칙이 될 것이다.

35) Michael J. Sandel, 『공동체주의와 공공성』, 김선옥 외 5명 옮김, 철학과 현실사, 2008, 25면. 이양수, 들어가는 말 참조.

36) 『공동체주의와 공공성』, 54면.

37) 『공동체주의와 공공성』, 37면.

38) 『민주주의의 불만』, 18면.

앞에서 설명한 처방의 원칙에 추가할 것은 처방의 시기와 대상이다. 먼저 처방의 시기는 반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인 6학년 시기이다. 담임선생이 시험부정을 저지른 엄석대와 엄석대의 불의에 저항하지 않은 반 아이들을 혼을 내는 시점에서부터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이다.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의 시기로 하지 않은 것은 초등학교에서 엄석대의 횡포를 같이 경험한 아이들로 구성된 학급이 중학교 진학으로 해체되기 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처방의 대상은 한병태와 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반 아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인물인 5·6학년 담임선생과 한병태의 부모는 본 처방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처방의 대상을 반 아이들로 한정할 이유는 초등학생과 성인의 처한 환경과 사회적으로 부여된 역할이 다르므로 같은 처방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반 아이들은 이성을 가진 합리적 주체로 본다. 그들을 합리적 주체로 판단하는 까닭은 앞에서 분석한 ‘약자들이 강자의 정의관을 가진 이유’에서 드러났다. 반 아이들은 약자로서 자신이 처한 환경 또는 조건 안에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합리적 사고를 하였다. 합리적 사고를 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이해하고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하는 합리적 인간이기 때문이다.³⁹⁾

39) 철학적 병의 원인 제공자인 엄석대를 치유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이다. 가장 큰 이유는 엄석대가 강자 중심의 정의관을 갖게 된 이유를 진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소설 속 등장인물 대부분이 강자 중심의 정의관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말과 태도에서 드러나지만, 그들이 왜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되었는지는 한병태와 반 아이들 외에는 설명이 없거나 부족하다. 엄석대의 강압에 대한 반 아이들과 한병태의 반응은 소설 속에 잘 묘사되어 있지만, 나머지 인물들이 왜 강자 중심의 정의관을 갖게 되었는지 소설에 나오지 않는다. 설명이 부족하여 그들이 철학적 병에 감염된 이유를 진단할 수 없다. 두 번째 이유는 좋은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은 좋은 구성원들의 역량이라고 논자는 생각한다. 독재자를 받아들인 독재자를 지지하건 모두 구성원들의 선택이다. 민주화의 역량이 갖춰진 국가에 독재자가 출현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엄석대 한 사람을 치유하여도 다른 독재자가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치유의 대상은 다수의 약자이며 구성원들이어야 한다.

3.3. 처방의 원칙에 적합한 철학적 해독제의 선택

앞 절에서 논자는 본 처방의 원칙으로 공동체주의적 처방이 적합할 것으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공동체주의에 대한 개념이 공동체주의자들마다 주장이 조금씩 다르므로 그들의 주장 중에서 본고의 처방 성격과 부합하는 마이클 샌델의 철학을 철학적 해독제로 원용할 것이다.

마이클 샌델의 철학을 본고의 철학적 해독제로 사용하는 이유는 첫째, 샌델은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한 공공철학자이기 때문이다.⁴⁰⁾ 공공철학이 가진 실천적 성격과 철학실천의 하위 분야로서 임상철학의 관점이 일치한다.⁴¹⁾ 샌델이 추구하는 “공공철학은 철학이 단순 이념이 아닌 실제의 제도와 관행, 더 나아가 인간의 실천적 삶 속에서 작동하는 철학적 이념, 특히 공공의 삶을 가능케 하는 시민적 자유를 탐구.”⁴²⁾한다. 그리고 야마야키 나오시는 공공철학은 학문이 서로 통합되는 학문의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이념과 현실의 통합을 지향한다고 주장한다.⁴³⁾ 김태창은 공공철학의 ‘공공’을 명사로 쓰면 공공성의 철학이 해결하려는 주제이며, 동사로 이해하면 주로 실천 활동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⁴⁴⁾ 철학실천의 하위분야인 임상철학 역시 광범위한 인간의 실천 활동에 관계하는 철학이다. 그리고 본 처방의 대상이 합리적 사고를 하는 가진 반 아이들이다.⁴⁵⁾ 그러

40) 고바야시 마사야는 “정의와 공공철학은 샌델 정치철학 전체에 흐르는 기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한다. 小林正彌, 『정의사회의 조건 마이클 샌델의 정치철학』, 홍성민·양혜윤 옮김, 황금물고기, 2012, 8면.

41) 이진남, 위의 논문, 355면 참조.

42) 『공동체주의와 공공성』, 해제 이양수, 310~311면.

43) 山脇直司, 『공공철학이란 무엇인가』, 성현창 옮김, 이학사, 2011, 19~48면 참조.

44) 김태창, 『공공철학이란 무엇인가?』, 『철학과 현실』, 2007, 82~83면 참조. 김태창은 공공철학을 기본적으로 세 가지 차원의 상호운동이라고 설명한다. 그 첫째는 공공의 철학이고 둘째는 공공성(公共性)의 철학이고 셋째는 공공(하는) 철학이다. 그 중에서 셋째의 공공(하는) 철학이란 명사가 아니고 동사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공공을 명사로 쓰면 공공성의 철학이 해결하려는 주제이며, 동사로 이해하면 주로 실천 활동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고 말한다.

므로 샌델의 철학이 합리주의를 기초로 한 실천적인 공공철학이므로 샌델의 철학을 본고의 철학적 해독제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앞에서 본 처방이 공동체주의적⁴⁶⁾ 처방이라고 밝혔다. 공동체주의는 공공선과 공동체와 구성원의 관계를 중시한다. 샌델은 공동체 구성원의 자아를 연고적 자아로 바라본다. 연고적 자아는 자신을 둘러싼 공동체의 역사와 문화 등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자아이며, 공동체의 가치가 자아의 정체성에 영향을 끼친 자아이다.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정체성을 깨달은 자아에게 샌델은 충성심, 애착심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⁴⁷⁾ 즉 공동의 소속감이 개인적 이익 추구에 우선하여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는 신념적 기초이고 또 그 동기가 되기 때문이다.

셋째, 샌델은 자신의 철학을 실천하기 위한 정치체제로서 시민적 공화주의(civic republicanism)⁴⁸⁾를 주장하였다. 시민적 공화주의의 핵심은 자기

45) 앞 절 '1. 처방의 방향에서 반 아이들은 합리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였다.

46) 본 처방이 공동체주의적 처방인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 논란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본 처방이 샌델의 논변이므로 샌델이 공동체주의자인가이다. 샌델은 『공동체주의와 공공성』의 서문에서 자신을 공동체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을 항상 불편하게 느꼈다고 한다. 그 이유는 그 표현이 자신이 거부하는 견해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공동체주의와 공공성』, 8~9면 참조할 것. 또한 그의 다른 저서 『정의의 한계』 재판 서문에서 자신이 공동체주의자라는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스테판 밀홀과 애덤 스워프트는 그들의 저서 『자유주의와 공동주의』에서 마이클 샌델을 자유주의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비판가로 소개를 한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7면 참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샌델의 주장에서 어떤 점이 공동체주의에 가깝고 어떤 점이 자유주의와 구분되는지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맹우만의 설명을 참조할 것. 맹우만, 『롤스와 샌델, 공동선과 정의감』, 『철학탐구』 32,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12, 313~348면 참조.

두 번째는 본 처방이 현대사회의 합리성에 기대고 있다는 점이다. 본 처방은 개인의 선택에 무간섭주의를 강조하는 자유주의 합리성에서 출발하며, 합리적인 개인의 선택을 중시하는 처방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샌델의 시민적 공화주의를 공동체주의와 구분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처방이 공동체주의적인가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의의 한계』, 57~61면을 참조할 것.

47) 『공동체주의와 공공성』, 54면 참조.

통치이다. 자기통치란 동료시민들과 함께 공익에 대하여 숙고하고 정치공동체의 운명을 만들어 가는 것을 말한다. 즉 공동선의 결정에 반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고민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과정을 자기통치라고 할 수 있다. 반 아이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학급 공공선의 입법자이며 공동 저작권자가 되는 것이다. 즉 자기통치는 반 아이들이 철학적 병을 치유하는 실천적이며 제도적 해법이다. 자신이 합의한 공동선을 지키기 위해 강자에 맞설 수 있는 용기와 이유가 탄생하는 배경이기도 하다.⁴⁹⁾

4. 처방의 적용

이 장에서는 철학적 해독제로 선택한 샌델의 철학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제3장에서 수립한 처방을 적용한다. 처방의 적용은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단계는 연고적 자아를 인식하는 단계이며, 두 번째는 강자 중심의 정의관에 대한 개인적 선의 선택 단계이다. 세 번째는 ‘공동선의 합의: 자기통치의 참여’로서 학급 공동체의 공동선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첫 단계에서 반 아이들은 자신이 연고적 자아임을 인식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이 학급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깨닫고, 공통의 소속감을 통하여 개인적 선을 바탕으로 학급 공동체의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신념적 기초와 동기가 마련

48) 김은희는 아래 논문에서 샌델이 직접적으로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을 ‘시민적 공화주의’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시민적 덕을 강조하면서, 그러한 덕의 육성을 일차적 목적으로 삼는 공화주의를 대안으로 삼고 있다는 점과 다른 논자들이 샌델의 입장을 그렇게 일컫고 있다고 각주에서 밝히고 있어 본고에서도 ‘시민적 공화주의’로 표현하였다. 김은희, 「샌델의 시민적 공화주의는 ‘민주주의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가?」, 『철학사상』 45집, 2012, 171면 참조.

49) 본고의 처방에는 샌델 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체주의자인 매킨타이어의 주장을 인용한다. 그러나 본고의 처방은 샌델의 철학과 많이 부합한다. 샌델의 철학은 권리와 옳음에 대한 선의 우선성에 기초한 공동선에 대한 숙고, 공동체의 성원으로서의 시민적 덕성의 강조, 정치에의 적극적 참여, 역사적·구체적 인간관 등을 옹호한다. 따라서 본고의 처방에 적합한 철학자로 샌델을 선택하였다.

된다. 두 번째 개인적 선의 선택 단계에서 반 아이들은 도덕적 행위자로서 서사적 탐색을 통하여 엄석대가 강요한 강자 중심의 정의관을 개인적 선으로 선택할지를 결정한다. 마지막 공동선의 선택: 자기통치의 참여 단계에서는 개인적으로 선택한 선을 바탕으로 다른 구성원들과의 토론과 합의를 통하여 학급의 공동선을 결정한다. 모든 처방의 적용과정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처방의 적용의 앞 단계는 다음 단계의 처방을 적용하기 위한 선수 학습의 단계와 같다.

4.1. 샌델의 철학

제3장 제3절 ‘처방의 원칙에 적합한 철학적 해독제의 선택’에서 마이클 샌델의 철학을 본고의 철학적 해독제로 사용하는 이유로 세 가지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다음 절에서 샌델의 철학을 원용한 세 단계의 처방의 적용을 설명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절에서는 마이클 샌델의 철학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철학적 해독제로 선택한 샌델의 철학은 롤즈의 『정의론』⁵⁰⁾에 대한 비판의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샌델의 철학을 대표하는 『정의의 한계』는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비판서이기 때문이다. 롤즈는 사회적 약자인 최소 수혜자(the least advantaged)⁵¹⁾를 우선 배려하는 정의론을 주장하였다. 롤즈의 정의론은 자유주의 입장에서 정의에 대한 합의를 사회계약이라는 형식으로 정의하였다. 롤즈는 정의 원칙에 합의하기 위해 자유로운 개인들이 원초적 상태(original position)⁵²⁾에서 자신의 성별이나 재산 또는 부모, 학력

50) John Rawls, 『정의론』, 황경식 옮김, 이학사, 2016.

51) 롤즈는 최소 수혜자들에 대한 개괄적인 정의로 “그 가족 및 계급적 기원이 다른 사람들보다 불리하며, 천부적 재능으로도 유리한 형편에 있지 못하며, 살아가면서 운수나 행운 역시 보잘것없는 것으로 드러난 사람들”이라고 설명한다. 『정의론』, 148면 참조.

52)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어서의 평등한 원초적 입장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사회계약론에 있어서의 자연 상태state of nature에 해당된다.’ 『정의론』, 46면 참조.

등을 알 수 없게 무지의 베일에 싸여 있다고 가정을 한다. 이런 평등한 상황에서 이성적이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우리 인간들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고 하였다. 원초적 상태의 사람들은 정의 원칙 두 가지에 합의한다. 1) 사람들은 모두에게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의 기본 자유를 평등하게 제공한다는 원칙에 합의한다. 2) 사회적, 경제적 평등 문제에서 사람들은 다소간의 불평등을 인정하더라도 불평등과 관련된 이익은 사회 구성원 중 가장 약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에 합의한다.⁵³⁾ 이런 상태에서 합의하는 정의를 롤즈는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⁵⁴⁾라고 부른다. 그는 이렇게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와는 다른 자유주의 정치철학을 통해서 복지국가를 정당화하였다. 롤즈는 선과 같은 윤리적 관념과 관계없이 인간의 합의로서 정의를 생각한 것이다. 롤즈는 사람마다 좋은 삶에 대한 생각(conception)이 다르므로 모든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는 정의를 우선시하였다.

롤즈에 대한 샌델의 비판의 핵심은 롤즈의 무연고적 자아관과 옳음의 좋음에 대한 우선성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샌델의 비판은 1) 롤즈가 형이상학적 존재를 경험론적 상황에 억지로 결합시켰다는 지적이다. 샌델은 롤즈의 자유주의적 자아는 무연고적 자아관으로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도덕적 주체가 아니라 초월적 주체라고 비판한다. 초월적 주체는 경험 이전의 사고에서만 존재하는 형이상학적인 것이다.⁵⁵⁾ 그리고 롤즈가 인용한 흄의 정의의 여건⁵⁶⁾은 경험론적인 것이다. 그리고 원초적 입장 역시 “특정적인 인간 상황에 관한 특정한 경험주의 설명을 포함한다.”⁵⁷⁾ 결국 롤즈의 주장은 형

53) 『정의론』, 105면 참조.

54) 『정의론』, 45면 참조.

55) 『정의의 한계』, 107~113면 참조.

56) 흄의 주장으로, 인간의 욕구에 비해 부족한 자연 자원과 아울러 인간의 자기중심성과 한정된 관용 등 오직 이런 것들에 정의의 기원이 있다는 주장. 『인간본성에 관한 논고 3: 도덕에 관하여』, 63~68면 참조.

57) 『정의의 한계』, 131면.

이상학적 무연고적 자아관과 경험적인 정의의 여건과 원초적 입장을 한 곳에서 논의하는 문제를 노정한다. 경험론의 입장에서 형이상학적 무연고적 자아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비판이다.⁵⁸⁾

2) 롤즈의 정의론은 도덕적 타락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롤즈의 무연고적 자아관에 기초한 정의는 서로에게 무관심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정의의 원칙을 합리적으로 선택한다. 즉 롤즈의 정의론은 도덕과 무관하거나 도덕이 타락한 상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도덕의 타락을 방지할 수 없다. 샌델은 이런 점에 대하여 “정의의 확대는 적어도 상이한 두 가지 측면에서 전체 도덕의 향상에 연계되지 못한다. 정의 여건을 충분히 확대시키지 못하거나, 아니면 충분해도 더 고귀한 덕목과 좀 더 유리한 축복의 상실을 복원할 수 없다”⁵⁹⁾고 말한다.

3) 무연고적 자아관의 특징은 서로 무관심하며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므로 공동체의 가치보다 자신의 이익이 앞선다. 그래서 분배의 문제에 대해 취약하다는 비판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롤즈는 우리의 재능을 공유자산(common asset)으로 보고, 자신의 이론을 상호 주관적 또는 간주관적인 개념에 암시적으로 의존한다.⁶⁰⁾ 그러나 상호 주관적이라는 개념은 목적에 앞선 자아라는 전제에 모순이 된다는 비판이다. 그리고 공유자산의 개념은 일부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함으로써 칸트의 의무론을 근거로 하여 개인의 자유침해를 최소화하려는 자유주의 이론에 모순이 생긴다고 샌델은 비판한다.⁶¹⁾

4) 목적에 앞선 자아라는 무연고적 자아관에서 도출된 옳음의 좋음에 대한 우선성 비판이다.⁶²⁾ 샌델은 선(좋은)이란 좋은 삶에 대한 윤리적 관념으

58) 『정의의 한계』, 136~137면 참조.

59) 『정의의 한계』, 122면.

60) 『정의의 한계』, 198~199면 참조.

61) 『정의의 한계』, 200~233면 참조.

62) 『공동체주의와 공공성』, 52면 참조.

로 좋음과 옳음은 상관적이라고 말한다. “정의에 대한 반성은 철학적 문제이므로, 이 반성을 좋은 삶의 본성 및 인간의 최고 목적에 대한 고찰과 합당하게 분리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⁶³⁾ 좋음과 옳음은 상관적이라서 롤즈의 주장처럼 좋음과 무관하게 정의를 합의할 수 없다고 비판을 한다.

5) 롤즈의 국가 중립성에 대한 비판이다. 롤즈는 현실적으로 다원주의 국가에서 전체의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우므로 국가는 도덕적·종교적 신념에 대해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샌델은 롤즈의 사회계약론을 현 사회가 처한 개인주의와 가치중립의 문제점에 대한 해법이라고 본다. 그러나 샌델은 정의와 좋음은 상관적이므로 정치적 문제에서 정의와 권리에 대한 숙고는 선 개념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 선 개념은 문화와 전통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문화와 전통 안에서 이런 숙고가 일어난다고 설명을 한다.⁶⁴⁾ 샌델은 자신의 공공철학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시민은 자기통치에 참여하고 국가는 시민적 덕성을 함양하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시민적 공화주의를 주장한다. 시민적 공화주의는 샌델이 현대 미국의 정치를 절차적 공화정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⁶⁵⁾

4.2. 처방의 적용

처방의 적용은 세 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단계는 ‘연고적 자아 인식하기’, 두 번째 단계는 ‘강자 중심의 정의관에 대한 개인적 선의 선택’, 세 번째 단계는 ‘공동선의 합의: 자기통치의 참여’이다.

4.2.1. 연고적 자아 인식하기 단계

이 단계는 반 아이들이 연고적 자아를 인식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63) 『정의의 한계』, 375면.

64) 『정의의 한계』, 374~422면 참조.

65) 샌델은 자신의 책 『민주주의의 불만』에서 미국의 정치를 절차적 공화정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화주의를 주장한다.

원용하는 철학적 지혜는 매킨타이어의 ‘이야기하는 존재’⁶⁶⁾이다. 이 단계를 통하여 반 아이들은 학급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깨닫고, 공통의 소속감을 통하여 유대의 감정을 느끼며, 개인적 선을 바탕으로 연대하여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는 신념적 기초와 동기를 마련한다. 연고적 자아임을 깨닫는 단계는 반 아이들이 철학하도록(doing philosophy) 안내하는 첫 단계이기도 하다.

연고적 자아를 인식하는 단계는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는 과정이다. 탐색의 방법은 자신을 둘러싼 가족과 마을, 직장, 종교 집회, 국가 등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샌델은 정체성을 찾는 방법으로 매킨타이어의 서사적(敘事的) 인간관(이야기 하는 존재)을 원용한다. 매킨타이어는 인간을 서사적인 존재로 본다. 매킨타이어는 같은 이야기를 공유하는 이들은 서로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서로 같은 이야기의 한 부분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서로 맞물려 있는 일련의 이야기들의 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인격적 정체성은 어떤 이야기의 통일성이 요청하는 성격의 통일성에 의해 전제되는 정체성”⁶⁷⁾이라고 본다. 자신을 둘러싼 공동체의 역사와 문화 등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 자아는 샌델이 주장하는 연고적 자아이다. 연고적 자아는 공동체의 가치가 자아의 정체성에 영향을 끼친 자아이다.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에 의해 요청되는 목적이나 가치를 인식한 자아는 자신의 삶도 역사의 일부이며 역사를 떠안은 존재(부담하는 존재, encumbered self)라고 본다.⁶⁸⁾

소설 속 반 아이들이 연고적 자아를 인식하는 과정은, 자신이 학급의 구성

66) 매킨타이어는 그의 책 『덕의 상실』에서 인간의 도덕적 정체성을 하나의 유일무이한 삶 속에서 구현된 이야기의 통일성 속에 있다고 말한다. 샌델은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매킨타이어의 주장을 인용하며 인간을 이야기하는 존재라고 표현한다. 『덕의 상실』, 322면 참조, Michael J. Sandel, 『정의란 무엇인가』, 이창신 옮김, 김영사, 2010, 309면 참조.

67) 『덕의 상실』, 321면.

68) 샌델은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독일의 유대인 학살에 대한 하네스 라우 독일 대통령이 2000년 이스라엘 국회 연설에서 사죄한 것과 일본이 한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의 여성과 여자아이들 강제로 끌어가 성노예로 이용한 것에 대하여 사죄하지 않은 점을 들어 역사를 떠안은 존재 즉 연고적 자아를 설명한다. 『정의란 무엇인가』, 293~294면 참조.

원에서 마음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먼저 학교와 학급과 자신을 연관지어 생각해보는 것이다. 그들은 학교에서 지식과 지혜를 배우는 자신을 돌아보고 학교와 선생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생각해본다. 그들은 함께 시험을 치르고, 다 같이 학교규칙을 준수하고, 주변을 정해 돌아가며 실습지를 돌보고, 방과 후 역할을 나누어 교실을 청소한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 속에서 자신과 동급생을 함께 생각하고, 학급과 동급생과 자신을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 지어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침에 등교하는 나에 대한 가족의 기대와 염려를 연속된 하나의 이야기에 담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면 학교와 학급, 그리고 가족이란 배경(setting)⁶⁹⁾에서 나의 이야기, 동급생의 이야기, 선생님의 이야기, 가족의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연속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이야기에 자신의 정체성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다. 반 아이들은 학교와 학급과 선생님과 부모와 동급생과 나의 관계가 하나의 이야기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연고적 자아임을 인식한다. 이들은 같은 담임선생의 제자로서, 같은 학급의 동급생으로서, 응당 부응해야 할 많은 바람과 기대, 염려를 수궁하는 연고적 자아가 된다.

연고적 자아를 깨달은 반 아이들에게 학급은 단지 학생들을 구분하기 위한 단위나 표지가 아니다. 그들은 하나의 이야기에 연결된 존재들이며, 같은 목적과 관심을 공유한 동급생이다. 그들은 학급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서로에게 유대감을 갖고 학급 공동체의 공동선을 지키려는 애착심이 있는 존재이다. 연고적 자아가 공동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에 대한 도덕적 무게는 소속된 자아라는 도덕적 고민에서, 그리고 내 삶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포함된다는 인식에서 나온다.⁷⁰⁾ 학교와 선생님과 부모가 그들에게 갖는 기대와 염려에 대한 반응은 개인적 선의 선택으로 나타난다. 이제 학급 공동체의 연고적 자아임을 깨달은 반 아이들은 공통의 소속감을

69) 『덕의 상실』, 303면 참조.

70) 『정의란 무엇인가』, 314면 참조.

바탕으로 연대하여 개인선과 공동선을 판단할 수 있는 신념적 기초와 동기가 마련되었다.

4.2.2. 강자 중심의 정의관에 대한 개인적 선의 선택 단계

이번 단계는 연고적 자아를 인식한 반 아이들이 강자 중심의 정의관이 자신들에게 주는 이익을 중시하여 강자 중심의 정의관을 개인적 선으로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 도덕적 판단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원용하는 철학적 지혜는 매킨타이어가 『덕의 상실』에서, 우리가 도덕적 행위자로서 목표와 목적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서사적 탐색이다. 앞 단계의 연고적 자아의 인식 단계에서 반 아이들은 공통의 소속감으로 연대하여 개인선과 공동선을 선택할 수 있는 신념적 기초와 동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므로 이번 단계에서 반 아이들은 엄석대가 강요하고 5학년 담임선생이 비호하는 강자 중심의 정의관이 주는 이익을 고려하여 자신의 선으로 선택하지 않고 배척할 것이다. 이 단계는 반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도덕적 판단을 하는 단계이며, 개인적 지적 활동인 철학함의 두 번째 단계이기도 하다.

제3장에서 약자인 반 아이들이 강자 중심의 정의관을 가진 이유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반 아이들은 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강자 중심의 정의관을 자신의 선으로 선택하였다. 그러나 연고적 자아임을 깨달은 반 아이들은 학급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에서 비롯된 공동체의 책임을 부담하는 자아이다. 그리고 이 책임에 담긴 도덕의 무게는 공동체에 소속된 자아라는 도덕적 고민에서, 그리고 내 삶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포함된다는 인식에서 나온다고 앞에서 설명하였다. 매킨타이어는 “한 전통 속에서 선들의 추구는 대대로 이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세대를 거쳐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선에 대한 개인의 추구는 일반적으로 그리고 특징적으로 - 개인의 삶이 그것의 한 부분을 이루는 - 전통에 의해 정의된 하나의 콘텍스트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실천에 내재하는 선들뿐만 아니라 개인적 삶의 선들에도 타당하다.”⁷¹⁾고 말한다. 반 아

이들은 선생님에게 배우고, 어른들에게서 옛날이야기를 듣고 또는 부모님에게 밥상머리 교육을 받으며 공동체가 요구하는 가치를 배운다. 착한 일을 해야 한다거나, 친구들과 싸우면 안 된다든지,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된다는 등의 이야기를 듣는다. 이 이야기들은 공동체가 추구하는 선이자 가치로서 모든 공동체의 보편적인 가치이기도 할 것이다. 이 가치들은 반 아이들의 자아의 구성적 요소가 된다. 그리고 도덕적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연고적 자이는 단순히 상황 속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아의 특성에 머물지 않는다. 특정 공동체의 가치가 상황 속에서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개입하고 간섭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반 아이들은 자신이 추구할 선을 부모와 선생님과 어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서 공동체가 요구하는 가치에서 찾는다. 그러므로 엄석대가 강요하는 강자 중심의 정의관을 배척하고 공동체가 요구하는 가치관을 자신의 선으로 선택한다. 이 판단의 배경은 연고적 자아의 책임에서, 나의 이야기와 너의 이야기는 한 이야기에 포함된다는 인식에서, 자신의 선에 대한 개인의 추구는 전통에 의해 정의된 하나의 콘텍스트 안에서 파악된다는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연고적 자아임을 깨달은 반 아이들은 개인적 선을 선택할 때 개인의 이익을 도덕적 판단의 기준으로 하지 않고 공동체의 공동선을 기준으로 강자 중심의 정의관을 배척할 것이다.

4.2.3. 공동선의 합의 : 자기통치의 참여 단계

이번 단계에서 반 아이들은 자기통치의 과정을 통해서 학급 공동체의 공동선을 숙고하고 그 기준의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체와 자신과의 상관성을 체화한다. 이 단계는 동료들과 함께 대화하고 학급 공동체의 공동선의 결정에 참여하는 단계로서 진정한 자유의 실현단계이다. 이번 단계에서 원용하는 철학적 지혜는 샌델이 주장한 진정한 자유에 도달하기 위한 자기통치의

71) 『덕의 상실』, 327~328면.

참여이다.

샌델의 시민적 공화주의는 시민은 자기통치에 참여하고, 국가는 시민의 덕성을 함양하는 공화주의를 말한다. 이 단계는 엄석대가 강요한 강자중심의 정의관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개인의 선으로 받아들일지 판단한 반 아이들이 학급 공동선의 결정에 참여하는 단계이다. 자기통치의 참여 단계는 다른 구성원들과의 토론과 합의를 통하여 공동선을 결정함으로써 강자에게 저항하고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실천적 활동으로 정치적인 삶의 단계이다. 즉 연대하여 강자에게 저항하는 단계이다.

샌델에 따르면 자기통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공동선에 대하여 동료 시민들과 숙고하는 것이며, 정치공동체의 운명을 함께 모색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것을 말한다. 공동선에 대하여 토론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표를 잘 선택하고 타인의 선택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공공 사안에 대한 지식과 소속감, 사회 전체에 대한 관심, 나와 운명을 같이하는 공동체와의 도덕적 연결이 필요하다.⁷²⁾ 샌델은 시민의 자격으로 공동체의 운명과 관련된 사안에 직접 참여하여 의사 결정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시민은 자유로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⁷³⁾

반 아이들은 학급의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선택하고 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엄석대에게 억압받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다. 이번 단계에서 자기통치의 주체는 강자중심의 정의관을 학급의 공동선으로 수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강자 중심의 정의관을 배척하기로 개인적 차원에서 선을 선택한 반 아이들은 이제 학급 공동체 전체의 도덕적 판단의 기준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무대에 섰다. 그들은 실제 무대에서 대안을 저울질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의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통치하고 통치 받는 심사숙고의 과정에 진입한 것이다. 학급 공동체의 공동선을 토론과 선택의 민주적 절차로 결정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과정이다. 이 과정을 방해하는 힘들 - 엄석대, 5학년

72) 『공동체주의와 공공성』, 38면 참조.

73) 『민주주의의 불만』, 18면 참조.

담임선생, 업석대의 독재에 협력하는 세력들, 업석대의 질서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 - 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고적 자이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결정한 존재이다. 연고적 자아임을 깨달은 반 아이들은 강자 중심의 정의관을 학급의 공동선으로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그들은 개인의 선을 선택하는 도덕적 판단의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함께 모여 공동체의 가치를 기준으로 공동선을 결정할 것이다. 이는 강자의 강압에 연대하여 저항하는 길이며, 강자 중심의 정의관으로 인한 철학적 병을 치유하는 마지막 단계이다.

5. 결론

본고는 임상철학의 관점에서 소설 속 등장인물들의 철학적 병에 대한 전편의 진단을 바탕으로 처방을 세우고 그 처방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김영진이 주장한 임상철학에 대한 주장을 요약하고 김영진의 처방 방식에 보충할 논자의 처방을 설명했다. 보충한 첫 번째 부분은 진단을 바탕으로 처방의 방향과 원칙을 정하고, 처방의 방향과 원칙에 적합한 철학적 해독제를 선정하는 과정을 추가하였다. 이 과정은 처방의 정확도와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그리고 처방을 적용한 후 처방의 수립과정과 처방의 효과를 상호 비교 검증하기 위함이다. 보충한 두 번째 부분은 처방의 적용과정으로, 철학적 병에 걸린 사람들이 스스로 본 처방에 따라 치료할 수 있도록 철학적 산파의 입장에서 그들을 돕는 철학상담의 방식을 취했다. 그 까닭은 철학적 병에 걸린 대상자들에게서 정서적이고 의지적이며 행동적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제3장에서는 전편의 진단을 바탕으로 처방의 방향과 원칙을 정하고 처방 원칙에 적합한 철학적 해독제를 선택하고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논자가 취한 처방의 방향과 원칙은 공동체주의적 처방이며, 본 처방에 적합한 철학적 해독제로 마이클 샌델의 철학을 선택하였다. 마이클 샌델의

공동체주의 철학과 시민적 공화주의의 핵심인 자기통치는 본 처방의 핵심을 이루기 때문이다. 제4장에서는 철학적 해독제로 원용 할 샌델의 철학을 롤스의 철학과 대비하여 설명했다. 그리고 처방을 ‘연고적 자아 인식하기’와 ‘개인적 선의 선택’ 그리고 ‘공동선의 합의: 자기통치의 참여’의 세 단계로 나누어 구성하고 적용을 했다. 1단계는 연고적 자아 인식하기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약자들이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깨닫고, 공통의 소속감을 통하여 유대의 감정을 느끼며, 개인적 선과 공동선을 공동체가 추구하는 공동선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신념적 기초와 동기를 마련하는 단계이다. 2단계는 연고적 자아를 인식한 약자들이 강자 중심의 정의관을 개인적 선으로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 도덕적 판단의 단계이다. 3단계는 약자들이 자기통치의 과정을 통해서 학급 공동체의 공동선을 숙고하고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체와 자신과의 상관성을 체화하는 단계이다. 본 처방 3단계를 통해서 약자들은 강자 중심의 정의관을 배척함으로써 철학적 병에서 치유될 것이다.

본고의 의의는 첫째, 병의 원인과 증상에 따라 처방의 원칙과 방법을 세우고 이에 따라 처방을 하는 데에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확한 처방이 가능해지고 치유의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본고는 임상철학의 실제 적용을 위한 사고실험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실재하는 집단의 독재를 대상으로 임상철학을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독재의 성립과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과 메커니즘은 집단의 역사와 문화, 경제, 민주주의 성숙도, 집단 내 관습이나 규칙과 더불어 독재에 대한 각 개인의 반응 등 수 많은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독재에 반응하는 각 개인들의 심리적 기제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독재에 관한 대표적 알레고리 소설로 알려진 소설을 선택하여 사고실험의 차원에서 임상철학을 적용한 것은 향후 다른 사회문제에 대한 임상철학적 접근에 많은 시사를 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고의 사고실험으로서의 의의가 오히려 본고의 한계라고 생각된다. 본고의 대상이 알레고리 소설이므로 사고실험으로서의 의의는 있지만 허구의 이야기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진단과 처방의 결과가 시사점은 있지만 실제와 정합성을 갖지는 못한다. 그리고 철학적 병에 대한 진단과 처방 그리고 적용 이후에 구체적으로 치료를 진행할 프로그램이나 임상기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 점은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임상철학은 개인적 아픔도 대상으로 하지만 특히 세월호 사건이나 포항 지진과 같은 대형 참사나 갑질과 같은 사회적 현상에 대하여 진단하고 처방하는 철학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임상철학의 연구는 그러한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대한 개인별 철학상담의 기초자료로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저서

- 김영진, 『철학적 병의 진단과 처방』, 철학과 현실사, 2004, 13~248면.
David Hume, 『도덕에 관하여』, 이준호 옮김, 서광사, 2014, 57~68면.
Michael J. Sandel, 『민주주의의 불만』, 안규남 옮김, 동녘, 2015, 18~35면.
_____, 『정의의 한계』, 이양수 옮김, 멜론, 2014, 재판 서문, 122~400면.
_____, 『공동체주의와 공공성』, 김선옥 외 5명 옮김, 철학과 현실사, 2008, 8~311면.
_____, 『정의란 무엇인가』, 이창신 옮김, 김영사, 2010, 293~314면.
山脇直司, 『공공철학이란 무엇인가』, 성현창 옮김, 이학사, 2011, 19~48면.
小林正彌, 『정의사회의 조건 마이클 샌델의 정치철학』, 홍성민·양해운 옮김, 황금물고기, 2012, 8면.
Stephan Mulhall and Adam Swift,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김해성·조영달 옮김, 한울, 2017, 7면.
Alasdair Macintyre, 『덕의 상실』, 이진우 옮김, 문예출판사, 1997, 303~328면.
이남호, 『낭만이 거부된 세계의 원형적 모습』, 『이문열 중단편집(하) 해설』, 열린책들, 1993, 380면.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민음사, 2017.

- John Rawls, 『정의론』, 황경식 옮김, 이학사, 2016, 45~148면.
中岡成文, 『시련과 성숙: 자기변용의 철학』, 이기원 옮김, 경인문화사, 2015, 10면.
플라톤, 『고르기아스』, 김인곤 옮김, 이제이북스, 2018.
_____, 『국가』, 박종현 옮김, 서광사, 1997.

2) 논문

- 김은희, 『샌델의 시민적 공화주의는 ‘민주주의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가?』, 『철학사상』 제45집,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2, 163~196면.
김태창, 『공공철학이란 무엇인가?』, 『철학과 현실』 제74호, 철학문화연구소, 2007, 82~98면.
맹주만, 『롤스와 샌델, 공동선과 정의감』, 『철학탐구』 제32집,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12, 313~348면.
박대원, 『임상철학의 정체성 연구 - ‘임상철학’의 국내의 자료 연구』, 『동서철학연구』 제73호, 한국동서철학회, 2014, 395~422면.
송영숙, 『이문열 소설의 군중과 권력연구 - 『들소』, 『칼레파 타 칼라』,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45면.
이영의, 『철학상담과 심리치료의 관계; 아헨바흐의 견해를 중심으로』, 『범한철학』 제53집 2호, 범한철학회, 2009, 387~408면.
이진남, 『철학상담의 한국적 적용을 위한 기초이론연구 - 용어 정리와 체계설정을 위한 제언』, 『범한철학』 제52집 1호, 범한철학회, 2009, 331~364면.
하중수·최희봉, 『성과사회와 철학적 병: 샌델의 정의론으로 치료하기』, 『인문과학연구』 제55호,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225~255면.
황명훈, 『교실 내 권력의 문제를 다룬 소설 비교 연구』,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35면.

Abstract

A Clinical Philosophical Prescription and practice
for Characters's in the Novel *Our Twisted Hero*

Ha, Jong-su*

In this paper, I try to follow up my article. In the former article, I diagnosed characters in the novel, *Our Twisted Hero*, from the viewpoint of clinical philosophy. In this paper, I prescribe and practice philosophical antidotes based on the diagnosis performed in the former article.

I follow the viewpoint, the way of prescription and diagnosis suggested by Young-Jin Kim in his clinical philosophy. In order to heighten an effect in Kim's clinical philosophy, this paper is composed of two steps: 1) suggestion of directions, of principles, and of proper philosophical antidote based on the diagnosis of the former article, 2) philosophical counseling to help the counselees solve their problems with philosophical midwifery.

According to three steps, the communitarian prescription is given to students in the novel, the weak. In the first step of the prescription, the students prepare the basic belief and motivation to become aware of encumbered selves, to select private good and common good, and to band together based on the common sense of belonging. In the second step, they, as moral agents, use the narrative quest of Alasdair MacIntyre's philosophical wisdom as the way to their personal goal and aim. In the third step, they utilize the wisdom of Michael Sandel's self-government in order to preserve their seeking values in a similar cases through making settlements with the weak together.

Key Words: clinical philosophy, philosophical illness, philosophical counselling,
communitarianism, Michael Sandel, Alasdair MacIntyre

* Kangwon National University

<필자소개>

이름: 하종수

소속: 강원대학교 철학과

전자우편: awinjs@naver.com

논문투고일: 2019년 7월 11일

심사완료일: 2019년 8월 19일

게재확정일: 2019년 8월 26일